



101Page

모세2

-열다섯 번째 이야기-

나 레 이 셴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라 어느덧 어른이 되었어요. 모세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늘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모세가 애굽 사람이 일하고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보았어요.

애 굽 인 (철썩! 철썩! 때리는 소리) 당장 일어나지 못해?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히 브 리 인 으악!!

나 레 이 셴 모세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왕궁에까지 퍼졌어요. 바로왕이 그 소문을 듣고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였어요. 모세는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바로의 애굽 병정들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102Page

나 레 이 셴 모세는 그곳에서 양을 치며 살았어요. 이제 자신이 애굽의 멋진 왕자님이었던 것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고난을 당하며 사는 것도 점점 다 잊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양을 치면서 호렘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참으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모 세 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걸까?

나 레 이 셴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 나 님 모세야! 모세야!

모 세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 나 님 모세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 레 이 셴 모세는 너무나 두려워서 엎드려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 나 님 모세야, 나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고통 받으며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라!

나 레 이 셴 모세는 그 말씀을 듣자 너무 두려워졌어요.

모 세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 나 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는 말을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나 레 이 셴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애굽 나라의 왕 바로에게 갔어요.

모 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바 로 뭐라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던 말이나! 나는 하나님을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낼 수 없다! 절대로 안 돼!

나 레 이 셴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싶어서 끝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바로왕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자 모세는 가지고 있던 아론의 지팡이를 아론에게 던지게 했어요. 그러자 지팡이는 뱀이 되었어요. 그래도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 레 이 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욱 힘든 일들을 시키고 괴롭혔어요.

나 레 이 셴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하 나 님 모세야 애굽의 모든 강이 피가 되게 해라!

나 레 이 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물이 피가 되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로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재앙을 애굽 나라에 내리셨어요. 개구리재앙, 이 재앙, 파리재앙, 가축재앙, 종기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어둠재앙..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열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 나 님 모세야,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을 거야. 그러나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괜찮을 거야.

나 레 이 셴 늦은 밤, 애굽 나라 곳곳에서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열 번째 재앙으로 애굽 나라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모두 죽었어요.

나 레 이 셴 바로왕의 첫째 아들도 죽었어요. 바로왕은 할 수 없이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바 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곳을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 양들과 가축들도 다 가져가라.

나 레 이 셴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03Page



104Page



105Page